

“밤거리 안전 우리가 책임져요!”

영북면 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영북자율방범대는 7월18일 지난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전임 제13대 조만형 대장, 후임 제14대 박명희 대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대장에게 이 자리를 넘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후임 제14대 박명희 대장은 취임사에서 “약 20년간 이끌어 온 단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앞으로 영북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 지키기 위해 순찰하시는 이 분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 잘 수 있는 것이며 훌륭하게 임무마치는 조만형 대장에게 감사드리고, 지역순찰과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 위해 애써주시고 지역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 주부 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영북면에 거주하는 30~40대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영북자율방범대는 7월 18일 지난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전임 제13대 조만형 대장, 후임 제14대 박명희 대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자유기고

마라톤 강훈련



이명순 포천마라톤클럽 회장

남들은 새벽잠에 단꿈을 꾸고 있을 시간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회원들에게 기상 전화를 하고 얼음물에 비누와 초코파이, 초코렛, 의약품 등을 챙겨 집을 나섰다.

비록 연습이지만 대회 때만큼 마음은 설레기만 하고 과연 40.2km를 달릴 수 있을까? 과연 체력이 될까? 청성공원에 한 두명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전복죽을 직접 새벽잠을 설치며 정성껏 준비해 오고자와 함께 맛있게 먹고 난 후 포마회원 25명은 “포마! 포마~ 파이팅”을 3번 외치고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했다.

경기도입료인 포천병원~하십곡~농협유주소(1차 휴식)~하수종말

처리장~아도니스~계류리~백의리 사거리(2차 휴식)~오거리~영평삼거리(3차 휴식)~대명식당~경북대학(4차 휴식)~신북육가공공장(5차 휴식)~대운광장~반월아트홀~청성공원 노선이다.

참가한 25명 전원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에 맛있는 먹은 전복죽의 효과라고 생각한다. 포마클럽은 철원 DMZ국제마라톤과 춘천조선일보마라톤을 대비해 이날 훈련을 실시했다.포천을 사랑하고 마라톤을 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자유기고

연천 충혼탑 탐방을 마치며

박 병은 의정부부호지청



의정부부호지청 혁신소모임 알리미 동아리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현충시설물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애국정신을 본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충시설물을 탐방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결정하고 연천을 그 첫 탐방지로 결정하였다.

2007년7월12일 의정부부호지청 알리미 동아리 회원 4명은 정마가 시작되면서 좀체 보기 힘들었던 반쪽 개인 하늘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선사시대 문화 유적지로 많이 알려진 연천을 향해 달려갔다.

한 시간 반 남짓을 달려 연천읍에 도착한 우리는 현충시설물을 찾아 읍내를 벗어나 돌았지만 도대체 어디가 옥계리이고 왕림리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 우리는 연천읍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정말 다행으로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읍직원의 도움으로 쉽게 필리핀 참전비, 옥계리 충혼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길옆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3단 하얀 단상위에 어둡잡아 1.5미터 정도 되는 필리핀 참전비를 만날 수 있었다. 이 필리핀 참전비는 한국전쟁당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참전한 1496명의 필리핀 장병들과 중공군이 대 격전을 치러 승리를 거둔 율동리 전투(51.4.22~23.)를 기념하기 위하여 연천군민이 1966년에 건립했다.

우리는 필리핀 참전비에서 간단한 제조작업을 한 후 옥계리 충혼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우리는 바쁜 시간 쪼개어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해주신 읍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옥계리 충혼탑으로 출발하였다. 옥계리 충혼탑은 태풍전망대를 가는 길가 능가 주택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반 할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옥계리 충혼탑은 1950.10.2일 연천군이 공산치하에서 벗어나 수복될 당시 조국수호를 위해 장렬히 전사한 오윤용 일등중사, 김주열 이등중사, 이종만 이등중사, 황마산 하사, 정용수 하사, 김시태 하사의 명복을 빌기 위해 1953년 10월 16일 건립하였다. 2차선 길가 오래된 농가사이 들녘에 전사한 병사들의 이름을 거칠게 새겨놓은 이 충혼탑은 그 어떤 위용을 자랑하는 시설물 보다 더 나의 가슴에 와 닿았다.

분명 옥계리 충혼탑은 연천 전투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기억하는 동료 전우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먼저 간 전우를 영원히 기억하며 기리겠다는 심정으로 돌이 아닌 그들의 가슴에 새겨넣은 비문일거라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저릿하고, 숙연함에 고개 숙여졌다.

벌써 6.25전쟁의 끝난지 50년도 훨씬 넘어섰다. 하지만 6.25전쟁의 교훈은 돌에 새겨진 병사들의 이름처럼 우리를 가슴속 깊이 새겨 그 분들이 지켜 주신 이 강산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야겠다.

에세이

꽃중에 예쁜 꽃 인꽃(人花)



윤순옥 포천의제21협의회고문

일년 사계중 꽃은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아기가 태어난 방에도 탄생의 기쁨은 꽃으로 표현하고 심지어 일생을 다 보내는 사후세계까지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어릴 적 아침 일찍 마당가에 어머니가 가꿔 놓으신 꽃밭에 제일 먼저 가보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백합이 피겨주는 향기. 수많은 꽃이 피고 꽃이 지는 봄을 향하는 다달리아. 꽃의 종류가 너무 많아 거기에 찾아 노는 벌, 나비, 손바늘라기도 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예쁜 꽃이 내 곁에 있어 행복의 요소가 되고 있다.

양중맞은 행동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온 식구들을 때로 시

키는 이제 30개월을 갓 지난 놈과 첫 돌을 지난 년년생 손주 녀석들이다. 내 아이들 키울 때 그처럼 예쁘게 보였던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 녀석들의 동작하나와 알아들을 수 없는 재잘거림! 보고만 있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가끔은 짹짹 놀랄 만큼 감동을 준다.

작은 놈은 나만 보면 업어달라고 슬며시 등에 와서 붙어 있으면 큰 녀석이 서툰 말로 “안돼 인돼 알머니 힘들어”하면서 제 동생을 내게서 떼어놓는다. 그 말에 감동먹은 내 모습은 스치는 전율에 몸가늘 줄 모른다.

꽃 중에 제일 예쁜 꽃이 인꽃이라 하더니 하나 틀린 말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그뿐인가 눈 감고 누워있으면 어느새 다가와 내 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주고 있는 보너스까지. 누가 시키는 것도 아

닌데 천성이 쾌활하고 씩씩한 큰 녀석이 매일처럼 하는 행동이다. 신기하고 사랑스러워 덤스 끌어안으면 내 안의 파랑새다.

예구 팔짱이 같은 소리 나만 하는 것 같지만 어쩌다 흐르는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더 정갈 있는 물소리를 내듯이 사랑도 내리 사랑이 분명함을 느끼게 해준다. 나만 그런가? 손주에게 닮은 빼앗긴 노부부들 전부터 많이 봐온 풍경이다. 그 예쁜 인꽃들이 잘 지라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할머니 역할을 준비중이지...

자유기고

하나되는 비상



박애자 주부 명예기자단 포천동지회장

밤새 촉촉한 비가 내리고 아침을 여는 소리가 울린다. 새벽 5시 기상해 배려한 화초 물주기 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출근 준비와 더불어 바쁘다. 한국예술심리치료 학회연수회가 일간 40시간의 수업이 대진대 학교 사회과학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정해져

있고 쉬는 시간 5분, 점심시간 50분, 하루 10시간 수업은 조금은 무리라고 느껴지지만 전국에서 참여한 130명의 화생이 강의에 열중하다보면 지루함도 잊는다.

갑작스럽게 포천신문 주부 명예 기자단 가산지부장 전화를 받고 우금리 철보가든에 차기 총무 송미령 기자와 함께 달려가 보니 가



한국예술심리치료 학회연수회가 4일간 40시간의 수업이 대진대 학교 사회과학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개최됐다.

산지부 주부 명예 기자들이 활짝 웃으며 반긴다.

맛있는 식사, 단합대회 결단원 화합을 논의하고 새로운 봉사

와 글쓰기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박옥석 지부장과 원화순, 용경자, 유영숙, 노홍심, 이은미, 신별라 주부 명예기자들은 하나같이 주부 명예기자단의 자발적인 봉사, 명강사 초청강의도 듣고 깊이 있는 공동체로 가꾸고 더불어 다른 지부와 하나가 되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고 다짐했다. 시원스레 내리는 빗방울 속에 가산포도의 싱그럽고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처럼 가산지부의 활약이 기대된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전달하고 싶다.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16

포천리틀야구단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참가



장승호 포천야구협회 회장

포항에서 개최된 2007-KBO총재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우리의 포천리틀야구단이 무사히 그리고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전국 135개의 유소년 야구단들의 축제로 경성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준비한 크고 훌륭한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전날 개최식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전야제 행사는 해병대 의장대의 멋지고 절도 있는 총검술 의장시범과 삼성 라이온즈야구단 응원단의 신나는 응원시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의 맨스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여러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수줍어하면서도 금세 가까워지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며 미래의 희망을 예감하였습니다.

이튿날 오전 10시 긴장감 속에 대구북구 리틀야구단과의 결전에서 비록 아쉬운 패를 당했지만 열심히 하는 우리아이들의 모습은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촬영지인 영덕의 인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

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은 경주의 국립박물관과 보문단지 등을 견학하며 선사시대의 유적과 보물 그리고 역사를 통한 새로운 교육의 시간을 갖고 포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피곤에 지쳐 잠든 우리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그려보았습니다.

운동장 하나 없는 야구의 불모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이 얼마나 바른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하며 미래

를 위하여 희생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역사가 말을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무엇 때문인지 어수선한 포천이 새롭고 살기 좋은 도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거듭 내려면 많은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현명한 우리의 시민들이 깨끗하고 새로운 시대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유기고

삶의 에너지 한잔의 커피



강옥자 나눔꽃이 대표

아침식사 후 마시는 한잔의 커피는 때론 보약 같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내면의 큰 에너지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커피 한잔이 주는 묘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손님이 오시거나 어색한 자리일 경우라도 커피 한잔 드릴까요? 어색한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한잔의 커피이다. 요즘에는 미니자판기가 각자의 식당마다 거의가 있는지라 식사 후에는 송환대신 자연

스럽게 마시게 되고 가격도 예전 같지 않아서 부담도 되지 않는다. 아침 점심 오후 늦은 시간 이렇게 하루에 석 잔씩은 날마다 마시고 있으니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 볼 때 어머니마하게 마시는 게 커피일 것이다. 이제 커피라는 차는 대중화가 되어서 길거리에서도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갖는 게 커피다. 한잔의 커피이다. 요즘에는 미니자판기가 각자의 식당마다 거의가 있는지라 식사 후에는 송환대신 자연

하게 커피한잔 못해봤지만 몸이 나른하고 지쳐 있을 때 누구나 커피 한잔을 마다하지 않을 것 같다. 요즘같이 비가 오라기라 할 때나 날씨가 무더운 날에도 각각 나름대로 취향에 맞게 더욱 때는 냉커피 비오는 날은 뜨거운 커피. 난 오늘도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열고 힘을 얻어 오늘도 시작한다.

월빙 부사의(不意思) 보편적 가치 (普遍的 價値) 25

‘어디서나 통하는 가치’

같은 부분이 있다. 다른 부분을 특수하다고 하는 것이고 같은 부분을 보편적이라 하는 것이다. 보편적이라 일반성과 통하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성과 특수성이란 말하는 것이다. 특수하다는 것은 고유(固有)하다는 것이다. ‘하나’라는 것이다. 여럿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보편적이라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광범(廣範)하다는 것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나 공감(共感)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普遍的 價値)’를 말하는 것이다.

보편적이라 객관성(客觀性)을 띠는 것이다. 보편적이라 더 이상 주관(主觀)이 아니라는 말이다. 객관적으로 주관을 검증(檢證)받는 것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인정(認定)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관(主觀)’의 객관화(客觀化) 작업(作業)이라 부른다. 보편적이라 이처럼 ‘주관의 객관화 작업’을 거친 것이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나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시공(時空)을 초월(超越)해 누구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이다. 세

계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이유이다. 보편적 가치는 이처럼 ‘특수성’을 뛰어넘는 것이다. 어디서나 통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통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나 통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찾는 것이다. 아니 특수성 속에 보편성을 확인(確認)하는 것이다. 특수성 속에 보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수한 것들이 모여 보편적인 것을 이루어나기 때문이다. 개체(個體)는 특수하나 전체(全體)는 하나를 지향하는 일반성(一般性)을 띠기 때문이다. 귀와 눈과 입과 코의 생김새는 다르나 그것이 열 하나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귀결(歸結)된다는 점에서 같다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이라 상식(常識)과 통하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상식(一般常識)이라 불려 말하기도 한다. ‘상식’이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잘 된다. 의미를 공유(共有)하기 때문이다. 경험(經驗)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삶을 공유하



이규임 한국영양학회학원회장

기 때문이다. 의미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고유명사(固有名詞)보다는 대명사(代名詞)를 많이 쓴다. 대명사를 써도 무슨 뜻인지 다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WTO 시대에 살고 있다. WTO 시대란 빗장을 열어놓고 무한경쟁(無限競爭)을 하는 시대라는 말이다. 빗장을 열어놓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보편적 가치’를 찾아야 하고 ‘보편적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우물 안의 개구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물 밖의 세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물 밖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 데 우물 안에서 내 경쟁(內在的)인 것만 고집한다면 안 된다. ‘상식’이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잘 된다. 의미를 공유(共有)하기 때문이다. 경험(經驗)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삶을 공유하

탐방 8 청량계 목장 손착유 통우유 2통 자건거 배달로 시작



마을중심에 있어 악취제거 청결유지 경영

젖소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사료의 섭취량이 적어 유량이 감소된다. 깨끗한 물과 운동장에 선풍기를 틀어주어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며 시원한 시간에 사료를 여러번 급여하여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양 관리가 필요하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청결하고 깨끗한 군내면 유교리에 위치한 ‘맑은 시내’를 뜻하는 동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청량계목장을 찾았다.

청량계목장(대표 이용철 이금순)은 한우를 비롯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1981년 서울우유 조합원 8004년으로 목장을 시작하였다. 30년 전 방천에 있는 풀을 베어 먹고 손착유를 하여 통우유 2통을 시간 맞추어 자건거로 배달하며 목장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이금순 군내면 여성분과 지부장은 막내아들이 결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길 소망하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큰아들 며느리가 더욱 열심히 목장 관리하여 친환경목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

취미로 부부가 여행을 다니며 내년 3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 중이다. 오늘도 목장을 돌며 우유 채수농사를 손리하며 우분은 바로 바로 옥수수 밭에 처리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목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량계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금순 군내면 여성분과 지부장은 막내아들이 결혼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길 소망하며 가족 모두 건강하고 큰아들 며느리가 더욱 열심히 목장 관리하여 친환경목장이 되길 바라고 있다.

취미로 부부가 여행을 다니며 내년 3월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 중이다. 오늘도 목장을 돌며 우유 채수농사를 손리하며 우분은 바로 바로 옥수수 밭에 처리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목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은미 주부 명예기자단 이사 ddmr8223@hanmail.net



청량계목장 이용철 대표(오른쪽)와 부인 이금순(가운데), 아들 유교목장 대표(이금순).